



13기 캄보디아 깐달팀
떠나요, 공정여행!

13기 캄보디아 깐달팀 무빙스쿨 시작합니다!

저희는 '공정여행'을 주제로 <착한 여행>과 <국제민주연대>에 방문하였습니다.

평소 옳다고 생각했던 내 행동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많았던 것 같아...



맞아! 어쩌면 우리가 여행할 때도 '내'가 즐기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의 여행이 현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네!

흞.. 그렇다면 '나' 중심이며, 쇼핑과 기념사진 중심의 소비적인 여
행이 아닌, 무언가 다른 대안적 방식이 없을까??



응! 바로 여행자의 휴양과 소비 중심이 아니라, 현지인들과의 소통과 경
험이 중심이 되고, 여행사업의 올바른 이윤 구조를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

아! 너희들 혹시 **공정여행** 들어봤니?!



그렇다면 기존 여행산업은 왜 공정하지 않을까?

1. 왜곡된 이윤 구조

여행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대부분은 항공사, 여행사들, 다국적 호텔체인과 외지 자본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식당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실제 그 여행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의 삶터와 주변 환경을 긴 세월 동안 지키고 가꿔온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미미합니다.

여행사는 저렴한 여행 상품으로 여행자를 유혹하고, 부족한 수익은 소위 '바가지 덤핑 쇼핑'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여행사는 자신들과 제휴 맺지 않은 상점에서 기념품을 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공정여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1. 여행자가 사용하는 경비를 현지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여행!

공정여행에서는 외국계 숙박, 식당이 아닌 현지 숙소,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여행을 통해 현지의 경제 성장을 지향합니다. 즉, 기존 여행산업의 왜곡된 이윤의 흐름을 바꾸고자 여행자가 지출한 경비가 현지 주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여행입니다.

2.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는 여행!

여행의 즐거움은 새로운 사람, 문화, 자연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즐겁기 위해서는 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여행은 현지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3. 자연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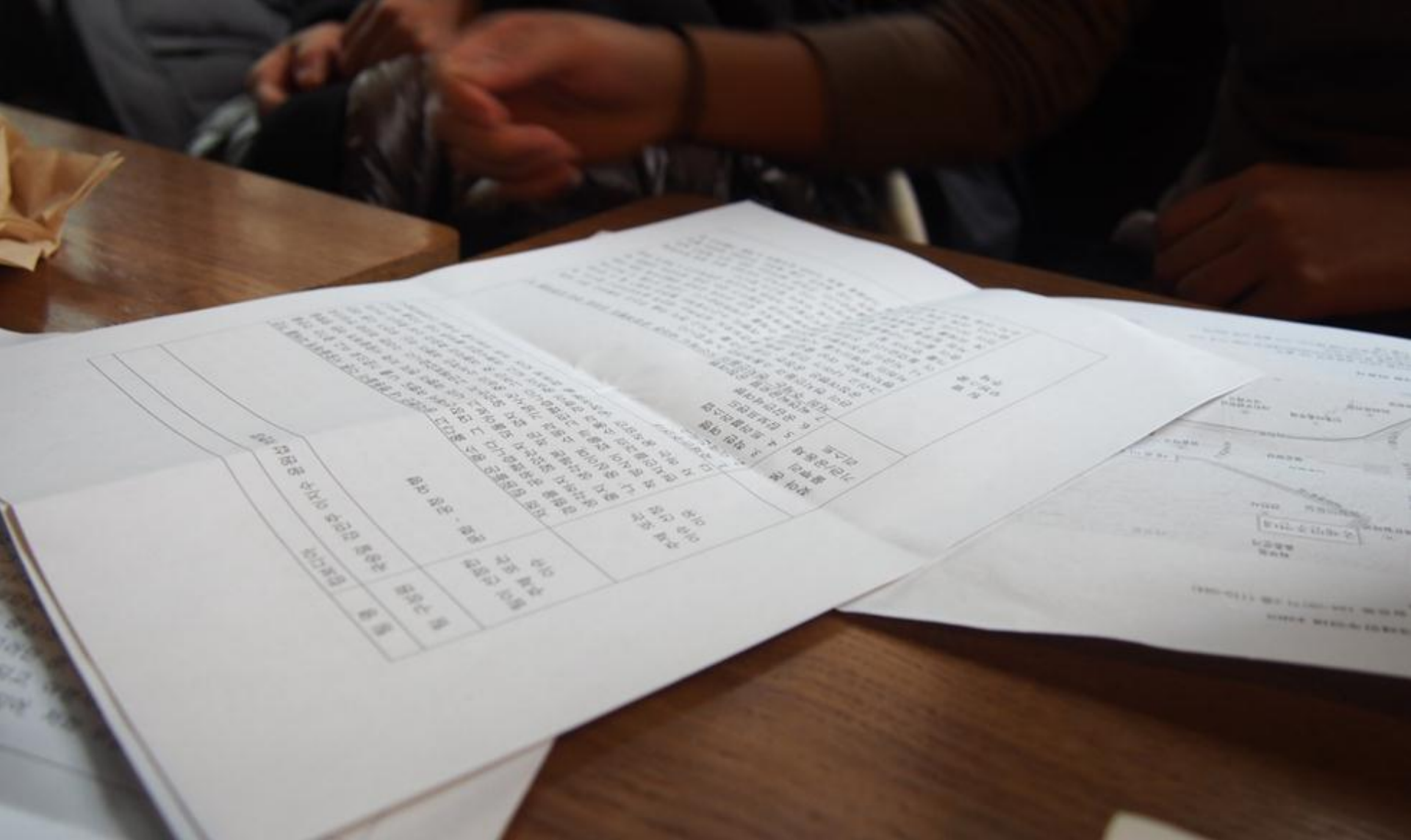
자연을 존중해주세요. 여행하는 동안 현지의 자연이 다치지 않게 노력합니다. 1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절제하고,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숙소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도 줄이는 여행을 합니다.



7일간 갈혀있던 파주 흥원 연수원에서 드디어 바깥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첫 목적지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인 관악구의 <착한 여행>으로 Go Go Go



점심 식사는 서울대 입구에 있는 '압구정 분식'에서 먹었습니다.
배고팠던 우리는 ... 음식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답니다 😊



<착한 여행> 인터뷰 방문을 하기 전,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복습하고 있는 우리 깡달팀!!



지속 가능한 공정여행의 대중화를 꿈꾸는 사회적 기업인 착한여행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완벽한 시공간이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행을 좋아하시면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어하시는 나효우 대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Q.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현지인들 측면의 공정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현지시장을 이용하면서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개발을 삼가고 현지인들의 환경과 문화를 수호해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공정함이라면, 현지인들이 재미있고 흥미를 가질수있는 것이 유익함이라는 측면에서의 공정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Q.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을의 발전에 앞서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BT(community based travel) 즉 마을 중심적인 여행이죠. 세부 보호 마을의 돌고래 사냥꾼들이 사냥 대신 돌고래를 보호하고 돌고래 watching이 되면서 관광수익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사냥을 할 때는 힘들어 보이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떠나요, 공정여행!



Q. 그렇다면 그런 긍정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 마을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마을사람들이 행복한 에너지를 내야 멀리있는 사람들도 찾아온다’라는 말인데 마을 사람이 여행자중심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을을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면 노력아닌 큰 노력이 될 듯 싶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꿈과, 13기 아띠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A. 착한여행이라는 기업이 커지기 보다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이 대중화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자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을 착하게 여행하며 보훈의 돌고래 케이스처럼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건강하게 바꾸는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관계유지를 형성하기 위해 다름을 이해하고 경험을 하는중 감동을 받았거나 슬픔을 느끼셨을 때 그 감정들이 왜 생겼는지 remind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잘생긴 나효우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컷!!
이제 국제민주연대로 GO~GO~



핸드폰이 없는 우리는 10분 정도 지각할 것 같아서 지하철에서 낯선 분에게 핸드폰을 빌렸어요...하하



헐레벌떡 경복궁 역으로 도착!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 신나~~~~^3^



국제민주연대는 인권단체에서 시작해 국내에 패키지 공정여행을 최초로 도입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남주 실행위원님이 여행 중이셔서 김정미 실무자님을 만났습니다.
실무자님은 공정 여행에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공정 여행에 참여한 뒤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매력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공정 여행을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국제민주연대 공정 여행 사업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비영리 단체인 국제 민주 연대가 공정 여행으로 얻어진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A.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다음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금으로 사용합니다.

Q. 중국 소수민족 지역을 중점적으로 공정 여행을 기획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A. 맨 처음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모계사회전통을 유지하는 '모서인'들이 사는 주구후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남주 실행위원님이 중국 문화를 워낙 좋아하시기도 했고, 사람들이 중국하면 떠올리는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특정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중국 소수민족 중심의 기획을 했습니다.



Q. 그렇다면 공정 여행으로 현지 마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나요?



A. '모서인'들이 사는 루구후 지역에는 '완회'라는 전통 사교 파티가 있었는데, 최근 이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 여행 관광객들이 루구후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서 '완회' 문화가 부활하였고 현재는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공정 여행 홍보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A.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가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참가를 하거나 다른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미 실무자님은 공정여행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공정여행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여행자들도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현지 음식만 먹기 등 자신만의 공정 여행을 실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인터뷰를 끝맺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아요 ~
자발적 불편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



경복궁역 근처 음식점을 찾던 중 엄청 비싼 삼계탕 집을 찾았어요...
비싸서 먹지는 못하고 사진만...



이제는 지하철 세 정거장은 기본으로 걸을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럼 이만 쭈무리음 리어!

- The end -